

포스코, 인니 쓰나미 복구성금 50만 달러

포스코그룹(회장 최정우·사진)은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 성금으로 50만 달러(약 5억6400만원)를 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사이 순다해협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와 해저 산사태로 인근 해안에 쓰나미가 발생해 현재까지 426명이 사망하고 7202명이 부상당했으며 4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포스코가 30만 달러,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 10만 달러, 포스코대우 및 포스코건설이 각각 5만 달러 등 총 50만 달러의 성금을 마련해 인도네시아 적십자에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컸던 자바섬 반덴주 판데



글랑 및 안아르 지역은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에서 40~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는 긴급구호팀을

가동하여 구호물품 전달 및 피해복구 자원봉사 등 현지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8월과 10월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3만 달러와 50만 달러의 성금을 기부했으며, 9월에는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가 위치한 쾰레곤시 저개발지역에 10채의 주택을 건립하여 기부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내륙 최남단 영업현장 방문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 김도진 은행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거제, 통영, 진주, 여수, 순천 등 내륙 최남단 지역의 영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 지역은 제조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들이 소재해 제조업을 지역경제의 뿌리로 둔 곳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이 지역을 선정했다.

/IBK



교육에 전 재산 기부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에 '바른 의인상'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제1회 바른 의인상을 수상했다. 공익사단법인 정은은 지난 2일 서울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에게 '2018년 바른 의인상'을 시상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재 5000만원을 재일조선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이 지난 2일 서울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제1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복동 할머니에게 상패를 수여한 후 위문하고 있다.

/공익사단법인 정

CGV아트하우스, 한국독립영화에 후원금

CGV아트하우스가 '한국영화인 헌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관한 김기영관 수익금 일부를 한국독립영화에 후원한다.

CGV아트하우스는 '2018 헌정관 올해의 한국독립영화' 3편을 선정해 후원금 1600만원을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개봉한 한국독립영화 중 '공동정범', '소공녀', '죄 많은 소녀' 3편이 후원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의 영예를 얻은 김일란·이희상(공동정범), 전고은(소공녀), 김의석(죄 많은 소녀) 감독에게 각각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한다. 영화 '죄 많은 소녀'에서 친구의 죽음에 가해자로 몰린 소녀 '영희' 역을 맡아 섬세하고 강렬한 감정 연기를 선보인 전여빈 배우에게도 '올해의 특별상'과 100만원의 후원금을



CGV아트하우스 '2018 헌정관 올해의 한국독립영화' 선정작 포스터

증정한다.

후원금은 지난해 11월 CGV아트하우스 '한국영화인 헌정 프로젝트'로 CGV 명동역씨네라이브러리에 개관한 김기영 헌정관의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2017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이름으로 영화 '꿈의 제인', '뽀빠이', '폭력의 씨앗' 3편에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시공사 선정, 이럴땐 무효



여지운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Q. A씨가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은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 선정 결의를 마쳤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건설사 직원들이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 만약 무효가 된다면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에 대한 총회의 결의도 무효가 되는 것일까?

A.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사업 진행에 있어 최대 이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도 시공사 선정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위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이 2018. 2. 9. 이후 최초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계약처리기준 제26조 제1항). 구 시공사 선정기준에서는 제한경쟁입찰도 인정했으나, 현행 계약처리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서는 우선 대위위원회에 상정된다. 대위위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추려낸다(제33조).

이렇게 하여 선정된 건설업자들은 이

때부터 홍보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방문, 카톡, 메일, 방문, 홍보책자 배부 등의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제34조 제3항). 조합원에게 사은품,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조합은 건설업자들의 합동홍보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에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건설업자들은 여기에서 홍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시공사 선정에 대한 총회의 결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제35조 제1항). 가장 엄격한 의사정족수이다.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직접 참석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출석한다면 직접 참석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출석한 다음, 투표용지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직접 참석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을 강행규정으로 본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조합이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에 따라 시공사 선정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규정의 취지를 잠탈(潛脫·몰래 빠져나감)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다61340 판결, 대법원 2013다50466판결, 대법원 2013다37494판결). 이는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인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어떠한 경우에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서울시 은평구 증산2구역 사건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러한 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시공사 선정 결의를 무효로 보았다(대법원 2014다61340 판결)

또한 대법원은 서울시 은평구 응암 제2구역 사건에서도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해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시공사 선정결의를 무효로 보았다(대법원 2013다50466 판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증산2구역 사건에서 무효인 시공사 선정 결의를 바탕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효인 시공사 선정 결의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시공사 선정이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쉽게 말해 입찰 절차를 다시 밟아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 정비사업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은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이유다. 건설업자들 또한 시공사 선정 무효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인사

◆안전보건공단 ◇ 2급 승진 △ 경영전략본부 경영전략성과부장 장봉두 △ 미래대응추진단 전자산업팀장 김옥 △ 미래대응추진단 화학산업팀장 이동욱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성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부장 양정열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유해성연구부장 김현욱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출입동성연구센터 병리검사부장 임경택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정책교육학부 교수 류수현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법정교육학부 교수 김관

김영길 興수석전문위원 예보 신임 이사에 선임

예금보험공사가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사진)을 예금보험공사 상임 이사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는 기금관리부, 기금운용실, 정보시스템실, 고객경영지원실, 홍보실, 안전관리실, 법무실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 신임 이사는 1964년생으로 명지고등학교와 경희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민주당정책연구원 미래기획실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 △ 서울지역본부 서비스업재해예방부장 신동영 △ 부산지역본부 지역3부장 박재태 △ 울산지역본부 지역3부장 유재홍 △ 경남지역본부 사업지원부장 이병준 △ 경남지역본부 지역3부장 김용수 △ 광주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김학진 △ 광주지역본부 지역1부장 신수환 △ 전남지역본부 지역2부장 김양렬 △ 전남동부지사 지역2부장 남정철 △ 전남동부지사 지역3부장 주귀돈 △ 제주지역본부 지역1부장 박수영 △ 인천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이규홍 △ 인천지역본부 지역3부장 한성주 △ 경기서부지사 지역1부장 김정희 △ 경북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구미) 소장 권영재 △ 경북동부지사 지역3부장 양재우 △ 대전세종지역본부 지역2부장 고영관 △ 대전세종지역본부 지역3부장 조선욱 △ 국무조정실 파견 이동수 △ 안전보건공단 공진만 영영수 임성진 채종범

◆새만금개발청 ◇ 4급(서기관) 승진 △ 산업진흥과 오옥연

◆한국무역협회 ◇ 신규 보임 △ 비서실장 박형선 △ 통상지원단장 제현정 △ 센터경영실장 이명자 △ FTA활용지원실장 고범서 △ 혁신생태계실장 박경진 △ 유라시아실장 조빛나 △ 온라인마케팅실장 박민영 △ 무역빅데이터실장 박강표 △ 취업연수실장 이동원 △ 제주지부장 이민석 ◇ 1직급 승진 △ 재무관리실장 고재수 △ 국제협력실장 이미현 △ 미주주실장 장상식 △ 무역연수실장 조윤재 △ 워싱턴지부장 추진석

◆예금보험공사 △ 상임이사 김영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단장 △ 운영지원단장 박세규 ◇ 팀장 △ 청사관리팀장 이승구 △ 정보보안팀장 문석봉

◆한국폴리텍대학 △ 신기술교육원장 정진홍

◆삼성전력 △ 신규 선임 △ 국내영업본부장 김태현 △ 상무 승진 △ 경영지원실장 김장우

◆NH투자증권 △ 부장 신규 선임 △ 실물자산금융부 신호상 △ 시너지추진부 정해웅 △ 리스크지원부 김재선

◆한글과컴퓨터그룹 ◇ 한글과컴퓨터 △ 전무이사 김대기 오순영 △ 상무이사 박미영 박상희 △

이사 이윤재 김석준 주경택 허현 박근형 ◇ 한컴MS △ 사장 우준석 △ 부사장 현재영 △ 이사 이재승 문영환 ◇ 한컴시큐어 △ 상무이사 함덕환 ◇ 한컴지엠디 △ 이사 김용부 ◇ 한컴유니맥스 △ 상무이사 윤성목 △ 이사 박재규 △ 산청 △ 이사 이종이 권일균 ◇ 한컴로보틱스 △ 전무이사 김동경

◆이투데이 △ 산업부장 박성호 △ 자본시장2부장 이진우

◆아시아타임즈 △ 주필 강현직 △ 총무이사 조민수 △ 편집부장 이진형 △ 뉴미디어부장 김사회부장 이원일

◆아주경제 △ 인사총무팀 부장 시태근 △ 기획취재팀 차장 장준형

부음

▲ 조순업씨 별세, 한기범(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장)씨 장인상 = 2일 오후 8시, 인천시 계양구 세종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7시. 010-5310-3528, 032-240-8444

▲ 원대식씨 별세, 원창목(원주시장)씨 부친상 = 3일 오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장례식장 3층, 발인 5일 오전 8시. 010-2101-1175

▲ 고정덕 씨 별세, 김양하(전 매일경제TV 국장·뮤직카도 퍼미퍼미 지사장)·철하(전 Genworth코리아 상무)·은경 씨 모친상, 좌용호(한양대학교 교수) 씨 빙모상, 김경일 씨 시모상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서울) 2호, 발인 5일 오전 5시. 02-2290-9452

▲ 김말순씨 별세, 박영호(현대대비스 수석)·박영민(삼성자산운용 법인마케팅본부장)·박인순·박미숙씨 모친상 = 3일 오전 2시, 서울직접자병원 장례식장 21호(3일)·303호(4일), 발인 5일. 02-2002-8439

▲ 강원호(전 한국유기농협회장)씨 별세, 석춘·선화·석창(JIBS 사업국장)씨 부친상 = 2일, 제주부민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총흔모지. 010-3418-7664